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에 관한 考察

The Regional Economic Benefits Effect of Tourism Development

金 銑 基

(韓國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李 美 惠

(韓國地方行政研究院 研究員)

<目 次>

- I. 序 論
- II.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
- III.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에 대한 問題點
- IV. 結 論

I. 序 論

地方自治時代에 이르러 地方財政擴充과 地域經濟自立問題가 가장 심각하게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주도형태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정책수립과 집행시 단순한 행정조조기능 이상의 실질적 경제기능은 거의 발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의 생산구조의 낙후성은 전반적으로 低生産性과 低收益性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制實施로 인한 地方分權化추세에 따라 지역문제를 地域自生力으로 해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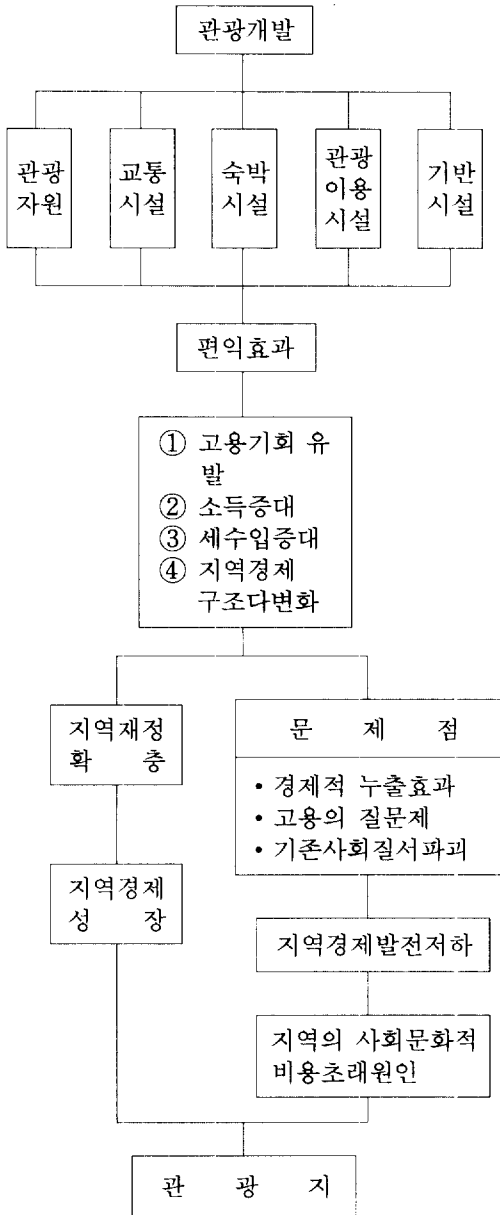
기 위한 地域經濟活性化 및 나아가 地域經濟成長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地域經濟活性化手段의 하나로써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觀光分野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각종 편익제공은 경제생활상에 일대전환기를 초래한 반면, 도시로의 산업과 인구집중은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변화와 이에 부응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장려정책이 오늘날 觀光의 大衆化時代를 초래한 원동력이다.

인간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공급측면의 觀光開發은 관광욕구충족에 더해서 고용기회창출, 소득증대등의 편익효과를 지역내에 파급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적 수단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觀光開發이 지역에 미치는 經濟的 波及效果는 고용유발, 소득증대, 세수입증대 그리고 지역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의 편익제공적 측면과

[그림 1]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
分析을 위한 構造



자료 : D.Pearce(1989), Tourism Development, Longman, p.193의 그림
이용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정리

인플레이션, 지가상승 등의 비용측면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地方化時代의 가장 당면문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에 대하여 다음 [그림 1]의 편익효과분석 구조에 따른 경험적 연구사례를 토대로 한 이론적 고찰과 관광개발의 편익효과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代案提示에 研究目的을 두고 있다.

II.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로의 산업집중과 인구집중은 갈수록 인간의 觀光欲求를 강하게 자극시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觀光開發은 지역내 고용기회창출이나 소득증대등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서는 觀光開發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開發이란 대상지역내 각종 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現在化시킴으로써 인간생활에 편익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¹⁾ 觀光開發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면, 지역내 부존자원인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자원의 가치증대 및 보존, 각종 기반시설확충 그리고 다양한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등을 통

1) 申允均(1984), 「地域開發行政論」, 大旺社, p.145

해 관광자로 하여금 동기유발되어 지역을 방문하여 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開發事業이다.²⁾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는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후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雇傭效果

觀光雇傭效果란 관광고용승수효과로서 관광객의 최소 한단위 소비지출증가가 해당지역내 얼마만큼의 고용기회를 증대시켰는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관광소비의 증가를 통해 창출되는 직, 간접 그리고 유발효과³⁾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고용효과연구를 보면 고용유발이 지역내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역경제성장의 주영향요인임을 증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결과들에 대한 질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 McCloy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고용효과연구들은 관광산업에 따라 그리고 산업별 투자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유발의 양과 이에 대한 기여가 높은 직업유형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는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질적 향상보다는 단지 양적 확산에의 기여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⁴⁾

雇傭效果는 다음과 같이 직접(1차), 간접(2차) 그리고 유발(3차)효과의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 ① 직접고용효과 : 관광산업 및 관련이용시설업(호텔, 여행업, 오락 시설, 등)에 관광자가 직접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1차적 고용효과
- ② 간접고용효과 : 관광산업에 필요한 원재료공급이나 시설설치 등의 관련업종의 고용유발로서 발생한 2차적 고용효과
- ③ 유발고용효과 : 직, 간접고용증가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내 소비가 증대하는 승수효과로서 관광 및 관련산업 그리고 기타 지역내 산업에 재투자됨으로써 유발되는 3차적 고용효과

觀光的 雇傭效果는 관광자소비지출, 투자비용 그리고 호텔객실을 기준으로 연구된 것이 많으므로 이들을 주요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관광지출이나 고용자수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정확히 제시될 수 있고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 호텔이 연구사례대상으로서 초점을 맞추어졌음을 부연해 둔다.

1) 觀光者支出當 雇傭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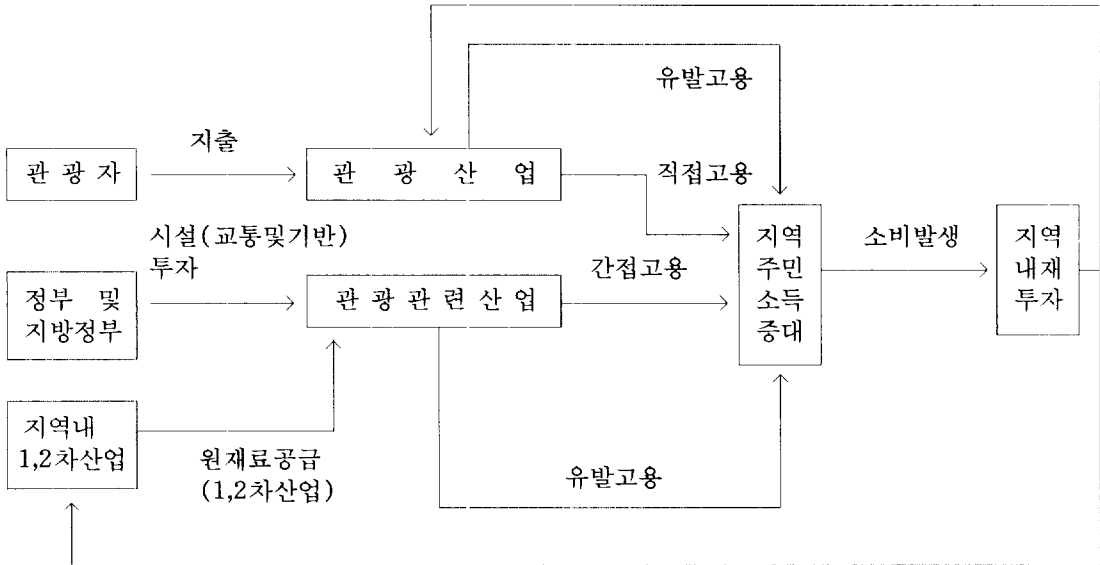
관광자지출당 고용효과란 관광자 1인당 소비

2) 朴石熙(1989), 「新觀光資源論」, 明寶出版社, p.82

3) 金思憲(1985), 「觀光經濟學」, 經營文化院, p.77

4) A.Mathieson and G.Wall(1982), Tourism: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gman, UK, P.77

[그림 2] 觀光開發의 雇傭效果過程



지출에 따른 고용승수효과를 말한다.

Archer의 연구에서 관광지출은 일상생활에 지출하는 소비지출보다 2배정도 더 높은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1인당 지출액 £10,000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소비자경우에는 2.39, 관광객경우에는 4.83의 고용승수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⁵⁾ 이와 유사한 결과는 Vaughan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에딘버리지역의 숙박산업을 대상으로 관광객 1인당 지출액 £1,000을 기준으로 추정한 고용승수효과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우선순위별로는 민박류, 게스트하우스, 호텔순이지만 숙박류 모두 높은 고용효과이다. 고용효과의 유형별로 보면 직접고용효과는 0.157, 간접고용효과는 0.025 그리고 유발고용효과는 0.029로 나타났

다.⁶⁾

관광지출이 실질적으로 地域經濟成長에 기여한 사례로서는, Var와 Quayson의 캐나다 오카나간지역에 대한 연구이다. 이 지역은 1979년 국제회의와 동계스포츠의 성황으로 그리고 뛰어난 자연경관의 매력요인에 의해 1,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7,700만을 소비함으로써 지역내 경제성장에 높은 기여를 하였다.⁷⁾ 구체적인 雇傭乘數效果를 살펴보면, 관광객 1인당 지출액 \$1,000은 0.91의 고용 증가를 발생시켰으며 주로 숙박과 관광관련 교통부문에서 나타났다. 특히 호텔부문이 약 36%를 차지하여 (2,670개의 고용기회창출)

6) *ibid.*, p.79

7) Turgut Var and Jojo Quayson(1985), "The Multiplier Impact of Tourism in the Okanagan", *ATR*, Vol. 12, p.499

5) A.Mathieson and G. Wall(1982), *op. cit.*, p.79

〈표 1〉 雇傭效果(관광자 1인당지출 £1,000 기준)

숙박시설유형	고용승수	고용효과유형	고용승수
호텔	0.187	직접고용	0.157
guest-house	0.208	간접고용	0.025
민박류	0.331	유발고용	0.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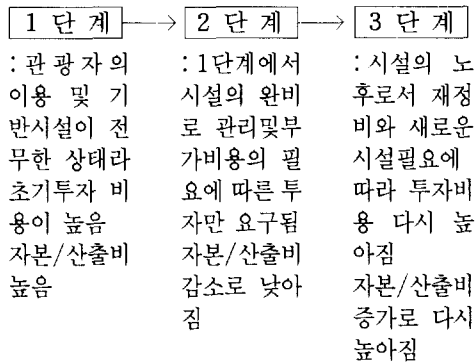
자료: A.Mathieson and G.Wall(1982), *op.cit.*, p.79

관광산업중에서도 호텔산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⁸⁾

2) 資本投資當 雇傭效果

관광개발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당 고용효과는 해당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변화과정에 의한다.⁹⁾

〔그림 3〕 觀光開發의 資本投資段階



투자규모와 고용유발효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사례로는 발리지역의 觀光産業 規模(대상산업:호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Rodenberg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호텔(1인당 투자규모 \$19,720)은 572명, 중규모(1인당 투자규모 \$4,145)는 31명 그리고 소규모(1인당 평균 \$1,500)는 3.5명의 고용이 유발되어 1인당 투자규모가 높은 대규모호텔일수록 고용효과가 높게 나타난다.¹⁰⁾

한편 관광산업과 타산업에 동일한 자본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고용효과를 비교연구한 결과, 멕시코에서는 \$80,000의 동일한 자본 투자규모에 따라 관광산업은 41개의 고용기회가 유발된 반면 타산업부문인 석유산업은 24개 그리고 금속산업은 26개의 고용기회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나¹¹⁾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효과의 연구결과는 주로 고용기회의 긍정적 효과만 연구되어 왔으나 초기에 大規模 固定資本이 투자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결코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이 몇

8) Turgut Var & Jojo Quayson(1985), *op.cit.*, p.505, 508

9) Erbes, Robert(1973), International Tourism and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OECD, 韓國觀光公社(1987), 「觀光地 住民의 觀光意識調査」, p.101 재인용

10) Eric E. Rodenberg, "The effects of scale in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in Bali, ATR, Vol. 7, p.188-9

11) *ibid.*, p.43

몇 학자들의 經驗的 研究結果에서 지적되고 있다.

초기 대규모 고정자본이 요구되는 산업은 호텔산업이 대표적 예이다.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멕시코는 고용자 1인당 투자비용은 \$3,599으로 제조업의 \$2,780에 비해 훨씬 높은 투자임을 알 수 있었고 튀니지의 경우 고용자 1인당 평균 \$16,000 정도를 투자함으로써 일반제조업의 평균 \$12,700에 비해 호텔산업의 초기 투자규모가 훨씬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3) 호텔客室當 雇傭效果

호텔부문의 객실당 고용비인 총고용자수/객실수는 호텔규모와 고용효과간의 승수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주 사용된다.

참고로 카리브해지역섬들의 호텔객실 규모별 고용효과의 연구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¹³⁾ 대체로 호텔은 객실규모가 클수록 고용

<표 2> 카리브해섬들의 호텔客室規模別 室當 直接雇傭效果

(단위: 실당 고용자수)

객실규모	St.Thomas	St. Croix	Antigua
49실이상	0.966	0.763	1.2
24-49실	0.985	1.075	0.6
25실미만	0.971	0.484	0.5

자료: Seward and Spinard(1982), op. cit., p. 44, p.142 표정리, 金思憲(1985), 前掲書, p.341

12) 金思憲(1985), 前掲書, p.346

13) Seward, Sirley B. and Bernard K. Spinard (1982), Tourism in the Carribean: The Economic Impact, IDRC, 金思憲(1985), 前掲書, p.341 재인용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본투자 규모와 고용효과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객실규모가 클수록 실당 고용효과가 큰 이유는 관광의 계절성으로 인한 비수기에도 규모가 큰 호텔경우는 事業經營의 多邊化(국제회의 유치, 각종이벤트 주최, 기타부대시설의 이용)를 도모하여 계절적으로나 경기변동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호텔경우 실당 고용효과가 낮은 이유는 고용구조상의 문제등(계절적 임시고용, 저임금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점과 더욱 소규모일수록 주로 가족경영체제등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러한 고용은 통계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표 3> 우리나라 호텔객실규모별 실당 직접 고용효과

객실규모	실당고용
100실미만	0.77
100-300실	0.95
301-600실	1.40
601-1,000실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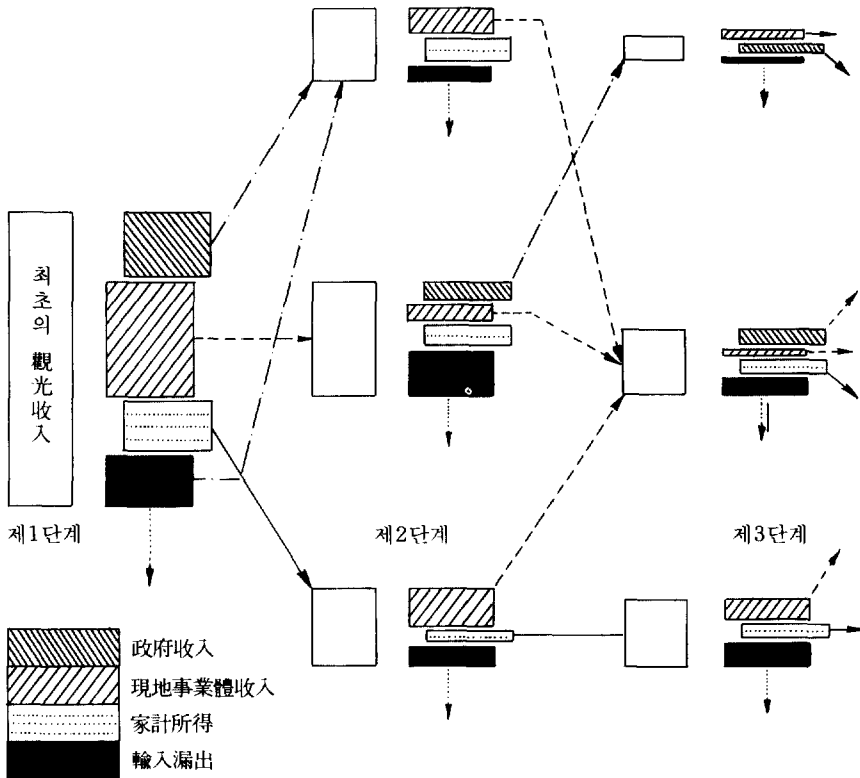
자료: 韓國觀光協會(1982), 『전국관광호텔사 세현황』의 통계자료 이용

2. 所得效果

雇傭效果和 所得效果간 관계는 주요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觀光의 기여는 乘數效果로 논의되는데, 所得乘數模型에 대한 연구는 1960년이후 경제 각 분야에 걸쳐 폭

[그림 4] 觀光所得의 段階別 乘數效果



자료 : Archer, Brain H.(1982), "The Value of Multiplier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III (4) p.237

넓게 진행되어 오다가 1970년에는 관광부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Archer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화를 이루는 단계까지의 진전은 오늘날 觀光産業의 經濟的 波及效果分析에 유용한 틀로서까지 자리하게 하였다.¹⁴⁾

Archer의 최초의 관광자지출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위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나타난 승수효과의 흐름도를 볼

때 관광개발로 인한 소득효과에서 재화 및 서비스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충당조절하는 경제자립지역일수록 관광소득유발효과는 큰 반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소득효과 또한 낮은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기존 학자들의 실증적 연구자료중 몇몇 도서지역의 觀光所得乘數效果를 사례로 보면 다음 <표 4>과 같다.

도미니카, 버뮤다, 하와이 등은 비교적 관광소득의 附加價値가 높아 經濟自立이 이룩되어 있는 반면 바하마, 피지 등은 산업부문간의

14) 金思憲(1985), 前掲書, p278

〈표 4〉 島嶼僻地의 觀光所得乘數

도서지역	관광소득승수
도미니카	1.20
버뮤다	1.03
하와이	0.91-1.30
바하마	0.78
피지	0.69
케이만군도	0.65

자료 : Archer, Brain H(1982), op.cit., p.240
의 표에서 정리

3. 稅收入增大

연계구조가 크게 취약한 지역으로서 경제자립이 낮은 때문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승

〈표 5〉 國家別 觀光세수입의 寄與度

국 가	연 도	관광에 의한 연간세입(미화:백만불)	관광에 의한 연간 세입	
			총국가세입에 대한 비율(%)	국제관광수입에 대한 비율(%)
오스트렐리아	1973/74	237.1	0.2	12.6
바하마	1968	-	55.0	-
	1974	74.6	61.9	22.7
버뮤다	1975	34.6	57.9	21.3
카나다	1974	380.9	1.1	25.6
자마이카	1975	10.3	1.5	18.4
퀸냐	1976	9.1	1.4	8.3
파키스탄	1978/79	21.9	1.0	21.9
	1979/80	23.9	-	15.6
페루	1979	26.3	0.7	8.1
세이셸	1976	0.6	-	5.6
스페인	1974	801.6	7.6	24.5
스리랑카	1971	4.9	1.0	15.4
미국	1977	-	3.4	-
	1978	13,985.0	3.4	-
유고슬라비아	1972	78.4	2.3	13.5
잠비아	1980	0.04	-	0.2

자료 : W. T. O, 1983

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재정확충은 궁극적으로 地域經濟力의 活性化에 의한 조세기반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므로 현실적으로 지방세제의 개선에 따른 세수입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新稅源의 발굴, 國稅의 地方稅로의 이양, 과표 및 세율의 인상 등이 고려수단이 되고 있으나 현실여건상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¹⁵⁾

관광개발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중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파급효과는 稅收入이다.

15) 韓豹桓(1991), “地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 擴充 方案”, 「地方自治時代의 地域開發戰略」, 韓國地域學會 & 韓國地域開發學會, p.78

관광으로 인한 세수입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관광산업종사자, 관광관련교통부문업체 등 주로 관광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관광자지출로서 소비된 재화서비스에 부과되거나 이들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에 귀속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이다.¹⁶⁾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별 관광에 의해 창출된 세수입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가 낙후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수록 전체 세수입의 절반이상인 관광으로부터 유발됨으로써 매우 의존도가 높은 반면 선진국들의 세수입 의존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앙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그리고 지방정부는 간접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10-30% 정도선의 상이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¹⁷⁾

이렇게 발생된 관광세수입은 지역내 觀光產業成長의 촉진비용으로서 그리고 공공시설부문의 정비 및 관리비용으로 재투자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관광지 또는 관광자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비용과 기반시설 및 개발인센티브부문에의 재투자이다.

예로서, 하와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한 내용을 Lundberg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하와이의 公共部門의 再投資費用

내 용	투자비율(%)
고속도로정비 및 확장	38.8
공항정비 및 확장	7.4
치안유지	15.7
소방시설정비	8.7
상하수도정비	13.2
자연자원개발 및 관리	13.1
지역공원관리 및 정비	16.6

자료 : D.E.Lundberg(1980), The Tourism Business, CBI Co., p.165
Hawaii Tourism Data book(1969)에서 정리

4. 經濟構造의 多邊化

관광개발은 총체적으로 地域內 經濟構造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변화의 본질이나 산업생산의 변화등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연구축적이 미미하여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나 일부 연구에서는 산업화가 반드시 근대화의 필수요소가 되고 관광개발은 이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경제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지역내 경제를 주도해 왔던 농업등의 1차산업이나 2차산업이 점차 3차산업으로 전환하는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결국 지역민의 雇傭構造變化를 초래한다.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구조변화의 영향요인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¹⁸⁾ 첫째는 지역내 관광개발에 따른 土地의 轉用이고, 다음은 관광개발 이후 기존산업의 不振과 함께 觀光產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이다. 지역내 농지의 관광지로의 전

16) 韓國觀光公社(1987), 前掲書, p.104

17) D.Pearce(1989), Tourism Development Longman, UK, p.213

18) A. Mathieson and G. Wall, op. cit., pp.87-8

용, 각종 관광관련이용시설의 건설 및 기타 관광산업들의 고용유발효과는 地域內 經濟構造를 多邊化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부문은 주로 민간경제부문인데 경우에 따라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 또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경제구조 다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특히 관광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 경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관광산업을 통제조절하여 관광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Malta가 그 한 예이다. Malta의 경우 지역민의 完全雇傭과 지역의 經濟生活向上을 목표로 정부가 觀光開發과 觀光產業의 진흥에 적극 개입하여 지원 또는 통제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지역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경제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공이나 정부측에서는 측면지원하는 형태로 부문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IV. 觀光開發의 地域經濟的 便益效果에 대한 問題點

觀光開發이 地域經濟的 效果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하며 또한 창출된 부가가치가 乘數過程과 관광산업과 관련하는 前後方生産連繫를 통해 궁극적으로 便益效果를 파급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

까지 관광개발을 地域經濟發展의 手段이나 目的으로 하고 있는 저경제지역들은 단기적 측면에서 승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이란 커다란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으로서 승수효과를 창출시킬만한 기반과 여건이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을 목표로 이루어지게 된 관광개발이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편익효과를 가져오지만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지역내 소득의 누출, 고용상의 질적수준저하, 물가인상, 지가상승, 기존지역사회질서파괴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地域經濟的 便益效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시되는 經濟的 漏出效果와 雇傭構造上的 質問題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의 편익적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經濟的 漏出效果

관광의 경제적 누출(spillovers)은 매우 심각하다. 지역경제성장의 목표하에 실시하게 된 관광개발은 지역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輸入性向의 증가, 外地勞動力의 流入 그리고 外地資本의 投資 등에 의해 관광자의 소비로서 유발된 지역내 소득중 상당부분이 외지로 빠져나감으로써 원래목표와는 달리 地域經濟成長에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

觀光의 經濟的 漏出效果를 발생시키는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輸入性向增加

관광수요증가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19) Jo Ann M. Farver(1984), "Tourism and Employment in the Gambia", *ATR*, Vol.11, p.261

의 수입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들은 주로 식품류, 장비, 건설자재 그리고 인력에까지 이른다. 관광개발이후 관광수요의 증가는 각종 재화 특히 식품류등의 공급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카리브해지역에서는 이런 이유로 관광재의 수입의존도가 해마다 4%씩 증가하고 있다.²⁰⁾

각종 재화의 수입의존에 대한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관광개발이후 農地의 專用 및 지역내 1,2차 산업의 쇠퇴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상실은 지역민의 역외이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관광자들 대부분이 경제발전지역으로부터 유입되므로 이들 수준에 맞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국제수준의 호텔이나 레스토랑등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입성향은 관광산업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총수입성향이 45%에 이르는 하와이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2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관광지인 하와이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판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광산업이 30% 이상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입성향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심한데, 필리핀 경우에는 국가총관광수입중 수입성향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율은 10.8%인데 비해 싱가포르 49.0%에 이르러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형국가경우가 더욱 수입의존도가 높다.

<표 7> 하와이의 觀光産業流刑別 輸入性向

산 업 유 형	수입성향(%)
호 텔	38
레 스 토 랑	41
식 료 품 점	49
주 류 판 매 점	66
의 류, 약 세 리 점	44
보석, 선물, 기념품점	66
사 진 관	57
여 행 사	29

출처 : D. E. Lundberg(1980), *op. cit.*, p.162

<표 8> 國家別 總觀光收入에 따른 輸入性向 (1978)

국 가	총관광수입 (\$100만)	수입성향(%)
한 국	408	19.7
스리랑카	77	26.6
필 리 핀	302	10.8
싱 가 폴	650	49.0
홍 콩(1979)	1,200	42.7

출처 : 韓國觀光公社(1987), 前掲書, p.110

② 外地勞動力 流入

관광산업에 외지노동력고용은 지역내 勞動力受給上의 不均衡이 주원인이다. 외지노동력의 유입은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내 고용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外地人의 流入이다.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전문성을 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근주변지역으로부터의 고용상 이주를 발생시킨다.²²⁾ 특히 지역내 고용인구가 부족할 경우나 혹은 주변지역의 경제사정이 매우 낙후된 경우 이러한 현상은 매우

20) A. Mathieson and G. Wall(1982), *op. cit.*, p.60

21) D. E. Lundberg(1980), *op. cit.*, p.162

22) J. Monk & C. S. Alexander(1986), "Free Port Fallout Gender, Employment and Migration on Margarita Island", *ATR*, Vol. 13, p.410

심하게 나타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용기회는 계속적으로 창출될수록 외지인의 이주는 계속되고 외지로의 소득누출 또한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둘째로는 지역내 관광산업부문의 專門人의 不足現象에 따른 外地人의 流入이다. 관광산업에는 비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문외에도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다수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주로 외지의 투자자본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영관리직등의 전문직 경우에는 외지인이 유입 또는 위촉되는 경향이 많다.

소득효과면에서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비전문직고용은 지역경제성장에 상대적인 기여도가 낮다. 원인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종사자간의 임금차이는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임금격차때문에 지역내 결정적인 소득유발은 전문직종사자에 의해 거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임금은 거의 자국으로 송금되어져 상당한 누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정적 영향만 미치게 된다.

③ 外地資本投資

외지인이 해당지역의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에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상황이다.²⁴⁾

첫째, 초기관광개발단계에서 대규모 자본투

자의 필요성에 따른 해당지역의 投資獎勵施策에 의해서이다. 관광개발 초기에는 지역내 관광시설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의 미비로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해당지역에서 세제의 감면이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외지인의 투자를 적극 장려, 유치하고자 할 경우이고, 둘째, 산업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에 따라 국제적 호텔체인이나 관광상품기획판매자들의 지역내 지사파견 또는 지역내 영세업체와의 합작등의 방식에 의한 투자등으로 지사의 사세확장을 도모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지역내 영세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외지업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력이 확장되어 지역내 영세업체들을 잠식하거나 또는 도산케하여 거의 외지업체들에 의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지배받게 되는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의 관광산업에 대한 외지인의 자본투자는 지역내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이나 지역내 재투자는 커녕 오히려 資本回收形式으로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든지 혹은 이자등의 형태로 이익발생과 동시에 바로 자국으로 회수되어지는 대규모 收入의 漏出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외지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부정적 효과만 파급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주도과 설악산주변의 속초지역에서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에는 관광개발시 지역 및 국가의 장려정책에 의해 대도시의 외지자본이 투자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은 투자제공지역인 대도시로 바로 송금되어버리는 수가 많다. 따라서 실질상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각종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의

23) Jo Ann M. Farver(1984), *op. cit.*, p.255

24) 金相武(1991), 前掲書, pp.97-8

부정적 효과만을 초래함으로써 최근 각종 관광개발사업은 과거의 무조건적인 관광개발지향과는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雇傭의 質

관광개발은 고용승수효과를 통해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승수효과자체가 아니고 고용의 질에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고용기회는 끊임없이 증가해 왔지

만 이것은 단지 量的 膨脹일 뿐이지 質的 成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비판의 핵심이 있다.

이와 같은 고용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非專門職從事者의 높은 비중도

관광지역내 주민대다수가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수차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 있으며 Allcock의 산업별 고용비를 비교제시한 <표 11>에서도 알 수 있다. 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산업에 비해 특히 관광산업의 고용구조가 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표 11> 産業別 雇傭比

(단위 : %)

산업별	전문직	사무직	가내수공업	비전문직	계
총 산업	13.77	20.68	40.95	24.60	100
일반산업	11.36	25.25	48.38	16.20	100
관광산업	5.07	15.02	48.62	31.29	100

자료 : J.Allcock(1986), "Yougoslavia's Tourist Trade", ATR, Vol. 13, p.577

고용구조의 왜곡현상은 관광개발대상지역의 경제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유로 첫째는 관광산업이 外地資本에 의해 투자되어 운영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자국으로부터 파견되기 때문이고, 다음은 지역내 교육관련의 여건의 미비로 전문직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선진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유입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주로 하위직이나 임시적인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외지인들이 대부분 정규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實質雇傭率을 매우 저하시키게 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지역민의 전문직 종사자고용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8.6%, 중규모는 17.5% 그리고 주로 가내업인 소규모일 경우에는 60% 이상인데, 대기업일수록 거의 대부분 전문직종사자는 외지인을 고용하므로써 지역민의 전문직고용율은 매우 낮아 실질상 지역에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²⁵⁾

25) Eric E. Rodenberg(1980). op. cit., p.193

Varley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흔히 질적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하위적인 호텔종사원(웨이터, 벨맨, 바텐더등), 관광택시운전사, 요리사, 수공예기술직에 주로 종사하며, 전문직종사자들인 경영관리인이나, 관광상품기획 판매자들은 주로 대자본투자지역인 선진지역인 유럽지역에서 유입됨을 밝히고 있다.²⁶⁾

② 雇傭의 不安定性

대부분 관광지는 季節性的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객의 수요증감에 따라 盛需期(on-season)와 非需期(off-season)로 구분되고 각 관광지역이나 관광산업들은 이점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영업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산업에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資本回收期間의 長期性和 그로 인한 자본투자의 低收益性등이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투자가는 적정투자로서 최대의 파급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용상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으며 그 대표적 방식으로 경영관리인들이 채택한 것이 지역내 관광성수기 경우등 필요시에만 고용하는 臨時雇傭制度이다.

정규직원외에 계절적으로 필요한 종사원들의 임시고용제이므로 지역내 생업에 종사하는 남자경우에는 불가능하여 대부분 지역내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 그리고 노인등 한계인구가 주요대상자들이다. 특히 여자들의 고용기회의 증가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임시제에서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신장하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관광지에서의 임시고용을 보면 63%가 여자들이고 40%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39%는 시간제고용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²⁷⁾

V. 結 論

地方自治制의 실시와 더불어 地域經濟의 自立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존적 형태로서 단순한 보조기능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내 경제자립기반구조는 매우 취약하여 이의 타개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觀光需要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관심을 끌고 있는 측면은 觀光開發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관광개발의 기본목적은 수요와 공급간의 조화로써 편익효과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관광개발의 기본목적은 수요와 공급간의 조화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또는 나아가 국가의 經濟發展과 궁극적인 총체적 社會便益의 極大化實現에 있다. 즉 관광개발은 고용기회유발, 소득증가, 세수입증대 그리고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의 각종 경제적 편익을 제 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목표에 기여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확충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나타난 요즈음 이러한 觀光開發의 經濟的 便益效果의 부상은 지역마다 깊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26) Jo Ann M. Farver(1984), *op. cit.*, p.254

27) 韓國觀光公社(1987), 前揭書, p.103

그러나 관광개발이 경제적 편익효과를 파급 시키기는 하나 과연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이나 하는 점은 내면적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역외로의 經濟的 漏出效果와 雇傭構造上 發生되는 質的 低下이다.

경제적 누출은 대부분 관광개발로 인한 農地의 轉用과 산업의 轉換으로 원재료공급 부족에 따른 수입의존율의 증가와 지역내 고용 인구부족 및 전문직종사자의 고용필요성에 의한 외지노동력의 유입으로 이들의 소득과 이익금등은 자본회수형식으로 지역외로 발생과 동시에 바로 누출되어버려 실질상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앞서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관광개발의 고용유발효과는 지역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제낙후 지역에서는 經濟 뿐만 아니라 社會文化的 興件의 취약상으로 專門人力의 교육 및 육성기회의 부족은 지역민 대부분을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하위직에 종사하게 하므로 지역민의 고용의 질을 매우 낮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고용유발효과는 量的 팽창에 그쳐 소득 발생면이나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거의 도움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 로까지 등장하게 한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인 계절고용과 투자의 저수익성등에 따른 臨時雇傭제도 고용상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이다. 임시고용은 생업종사자인 지역민들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고용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여자,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이 대상이 되어 고용구조상의 질적 성장에 한계성을 갖고 있다.

經濟的 漏出效果와 雇傭構造上의 質문제에

대한 적정대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역경제성장이란 목표하에 이루어지는 관광개발은 외형상의 지역경제성장만을 초래하여 이른바 “場所의 繁榮(place's prosperity)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住民의 福祉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서 住民의 繁榮(people's prosperity)을 도모하는 수단으로는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²⁸⁾

관광개발을 수단으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 누출효과에 대한 방지대안으로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조치 및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즉, 외지노동력이나 자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각종 이익금은 각종 세제조치로서 부문별 일정량의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내에 환원시키게 하는 한편 외지인들의 소득을 지역내에 재소비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세제감면의 혜택과 고부가가치라는 이점을 강조하여 외지자본투자로 인한 각종 이익금을 지역내 각종산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이다.

둘째, 지역내 공급부족현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수입의존율의 감소대안으로서 지역내 농지전용의 방지를 위해 관광개발시, 일정량의 필요농지에 대한 보전조치 또는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를 제도화시켜 농지전용에 대비한다. 이는 지역민의 수입의존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광개발이후 농지의 상실로 발생하는 지역민의 이

28) E. Hoover(1971), An Introduction to Regional Economics, New yourk: Alfred A. Knopf, pp. 272-277

주문제의 해결안도 될 수 있다.

셋째, 지역민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대안이다. 외지의 전문노동력 유입은 경제적 누출효과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되긴 하지만 이런 고용구조는 나아가 지역민의 열등의식과 외지인에 대한 불만, 불신을 팽배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까지 파생시켜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온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教育與件의 造成과 地緣産業의 育成이 필요하다. 실상 地域經濟의 낙후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의 취약성은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꾸준한 시간과 자본투자로서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지역민의 고용의 질을 상승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역내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의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민주주의 地緣産業을 적극 지원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육성은 지역내 직접 소득원이 되어 역외 경제적 누출효과의 방지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사기고조와 자부심 그리고 궁극적인 고용구조상의 질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로 볼 때, 觀光開發은 經濟的 漏出과 雇傭構造上의 質問題 발생으로 실질적 파급효과의 여부에 따라 어느정도 경제성장이나하는 논란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域經濟的 便益效果增進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궁극적 목표인 地域經濟活性化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地域經濟活性化가 지역마다의 관건으로 되고 있는 요즘쯤 자연 및 인문등 각종 관광부존자원이 많은 제주나 강원등의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관광개발

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더욱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결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參 考 文 獻)

- 金思憲(1985) 「觀光經濟學」, 經營文化院
 金相武(1991) 「觀光開發論」, 啓明大學出版部
 朴石熙(1989) 「新觀光資源論」, 明寶出版社
 申允均(1984) 「地域開發行政論」, 大旺社
 韓國觀光公社(1987) 「觀光地住民의 觀光意識 調査」
 黃明燦(1984) 「地域開發論」, 經營文化院
 仰木重藏(1978) 「觀光 レクリエーションと 森林」, 農林出版(株)
 末武直儀(1984) 「觀光事業論」, 法律出版社
 韓豹桓(1991) “地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 擴充方案”, 「地方自治時代의 地域開發戰略」, 韓國地域開發學會, 韓國地域學會
 Douglas Pearce(1989) Tourism Development, Longaman, UK
 D.E.Lundberg(1980) The Tourism Business CBI Co.
 E.Hoover(1971), An Introduction to Regional Economics, New york:Alfred A. Knopf, pp.272~277
 J.R.Brent Ritche & C.R Goldener(1987),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 Handbook for Managers and Researchers, John Wilery & Sons

- Archer Brain H(1982), "The Value of Multiplie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III(4)
- Eric E.Rodenberg(1980), "The Effects of Scale in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in Bali",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7
- J.Allcock(1986), "Yugoslavia's Tourist Trade", ATR Vol.13
- J. Monk & C.S.Alexander(1986), "Free Port Fallout Gender, Employment, and Migration on Margarita Island", ATR Vol.13
- Jo Ann M.Farver(1984), "Tourism and Employment in the Gambia", ATR Vol. 11
- Timonthy S.Meson & George S.Vozikis (1985), "The Economic impacts of Tourism at the port of Miami", ATR Vol.12
- Travis A.S.(1982), "Managing the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and Leisure", Tourism Management III (3)
- Tourgut Var & Jojo Quayson(1985), "The Multiplier impact of Tourism in the Okangan", ATR Vol.12